

# 마라도나·메시도 댐 ‘미니 월드컵’...신태용호 “4강 신화 재현”

U-20 월드컵 20일 전주 등서 개막...24개국 ‘23일 열전’

‘죽음의 A조’ 한국, 20일 오후 8시 전주서 기니와 1차전



한국 축구가 안방에서 열리는 ‘미니 월드컵’에서 젊은 태극전사들을 앞세워 34년 만의 ‘4강 신화’ 재현에 도전한다.

세계 축구 예비 스타들의 경연장인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오는 20일 전주를 비롯한 국내 6개 도시에서 막을 올려 다음 달 11일까지 23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U-20 월드컵은 FIFA 주관 대회 중 두 번째 규모가 큰 대회로, 그동안 아르헨티나의 ‘죽은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를 필두로 루이스 피구(포르투갈), 티에리 앙리(프랑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거쳐 갔다.

이번 월드컵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국이 참가했다. 4개국씩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 2위와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네 팀이 16강에 오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의 목표는 34년 만의 4강 신화 재현이다. 우리나라가 U-20 월드컵에서 거둔 최고의 성적은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대회 때의 4강 진출이다.

이후 남북 단일팀이 출전했던 1991년 포르투갈 대회와 2009년 이집트 대회, 2013년 터키 대회까지 세 차례 8강에 올랐지만 2015년 뉴질랜드 대회 때는 본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신태용 감독은 올해 대회가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새로운 ‘황금 세대’를 앞세워 8강을 넘어 4강까지 넘본다는 포부다. 신태용호는 ‘바르사 듀오’ 백승호(바르셀로나)와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의 맹활약 속에 이번 대회 본선 진출팀들과 경기에서 이미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달 4개국 초청대회 때는 잠비아에 4-1 대승을 거두는 등 우승했다.

신태용호는 ‘바르사 듀오’ 백승호(바르셀로나)와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의 맹활약 속에 이번 대회 본선 진출팀들과 경기에서 이미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달 4개국 초청대회 때는 잠비아에 4-1 대승을 거두는 등 우승했다. 대표팀은 우루과이와 평가전에서도 2-0 승리했고 세네갈 평가전에서는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순항했다.

‘죽음의 A조’에 묶인 우리나라는 개막 당일인 20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기니와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이고, 23일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아르헨티나와 2차전을 치른다. 이어 26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 잉글랜드와 마지막 3차전에서 맞붙는다.

신태용호는 조별리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상대인 기니와의 개막전 승리가 필수다.

우리나라가 U-20 월드컵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기니는 아프리카 대륙 예선을 3위로 통과한 북병이다.

프랑스 SC 바스티아에서 뛰는 공격수 줄스 케이타가 경계 대상이다. 케이타를 포함한 해외파 6명이 기니 전력의 주축이다.

16일 입국한 기니 대표팀의 만주 디알로 감독은 16강 진출을 위해 첫 상대인 ‘한국을 반드시 잡겠다’는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전주에 입성한 한국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도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보다 준비를 잘했고, 선수들도 자신감에 차 있다”면서 “기니는 스트라이커 두 명의 파괴력이 좋지만, 수비 빌드업이 약한 팀”이라며 조직력을 바탕으로 4강 목표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신태용 감독은 올해 대회가 안방에서 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U-20 축구대표팀 대한민국과 세네갈의 평가전에서 추가골을 넣은 백승호가 태극마크를 가리키며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우, 백승호, 조영욱. /연합뉴스

## ①안방 ②이·조·백’ 막강 공격 3각편대

〈승우·영욱·승호〉

### ‘U-20 4강’ 자신하는 두 가지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20일 개막하는 U-20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을 노린다.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대회 이후 34년 만이다.

이런 목표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점에 더해 막강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 조영욱(고려대), 백승호(바르셀로나B)로 이어지는 ‘이·조·백’의 불박이 공격 3각편대가 그들이다.

신태용 감독은 그동안 상대팀 전술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써왔다. 21명의 선수를 고루 투입하며 포백과 스리백 등으로 주전 경쟁을 시켰지만, 공격진에서는 이들 3명을 불박이로 기용하며 신뢰해왔다.

이승우와 조영욱, 백승호는 또 그런 신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수비가 불안하다는 대표팀의 평가를 막강한 공격력으로 이를 상쇄시켰다.

지난 11일 우루과이, 14일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대표팀이 기록한 4골 중 3골을 이들 3각편대가 뽑아내며 위력을 뽐냈다.

우루과이와 평가전에서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승우가 몸을 던지는 헤딩골로 경기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경기는 2-0 승리였다.

세네갈과 경기에서는 두 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두 골을 합작하면서 2-2 무승부로 마쳤다. 조영욱과 백승호가 1골씩을 넣었다.

이승우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드리블과 창의적인 플레이, 강한 볼 집종력이 장점이다. 백승호는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안정감, 대담한 슈팅력이 돋보인다.

1999년생으로 대표팀 막내인 조영욱은 이 3각편대의 꼭지점이다. 스리백을 이용해 공간을 넓게 활용하면서 수비를 끌고 다

닌다. 자신이 직접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승우와 백승호에게 기회도 열어준다.

조영욱은 ‘바르사 듀오’에 조명이 집중되면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훈련을 거듭할수록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최전방 원톱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이들 공격 편대는 어느 팀과 겨뤘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부담감만 덜 처낸다면 어떤 팀 수비든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의 첫 시험 무대는 개막전이자, 조별리그 1차전인 기니와의 경기다.

이승우는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니와 조별리그 1차전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조·백’의 3각편대가 이번 대회 어떤 활약을 펼칠지, 몇 골을 넣을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연합뉴스

# KIA 5선발·마무리 안정화 “1위 수성 문제없다”



재정비 끝낸 ‘호랑이 군단’의 마운드가 1위 수성을 이끈다.

지난 16일 KIA 타이거즈는 LG 트윈스를 상대로 올 시즌 첫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6회 동점 솔로포를 날렸던 이범호가 연장 11회말 무사 3루에서는 안타를 터트리며 끝내기 소의 주인공이 됐다.

이범호의 결정적인 타격 뒤에는 KIA가 인내로 기다린 마운드의 안정화가 있었다.

이날 김진우가 6이닝 7피안타 1볼넷 5탈삼진 2실점으로 선발 임무를 완수했고 이어 등판한 홍건희-김윤동-임창용이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좌완 특급’ 차우찬과 평균자책점 1위(2.49) 볼펜을 보유한 LG를 상대로 짜릿한 끝내기 승을 만들 수 있었다.

1위 행보 속에서도 불안하게 꾸러가던 5선발과 필승조가 합작한 승리라는 점에서 1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

KIA의 1위에는 최형우를 중심으로 강화된 타선과 함께 탄실한 선발진이 있었다. 헛타-양현종이 기대 이상이 활약으로 막강 ‘원투펀치’를 구성했고 팻년도 안정되게 선발 한 축을 구축했다. 여기에 임기영이라는 ‘깜짝 스타’도 탄생했다.

그러나 5선발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16일 경기 전까지 김윤동-홍건희-고효준-정동현-김진우 등 임시선발이 등판했던 경기 전적은 1승7패였다.

불확실한 김진우와 안정적인 차우찬이 맞붙었던 16일 경기 전말도 KIA의 패배에 무게가 실렸다. 예상과 달리 김진우가

김진우 2경기 연속 호투

임창용 뒷문 단속 믿음직

홍건희·김윤동 활약도 호재

차우찬과 밀리지 않는 기싸움을 하면서 경기를 팽팽하게 끌고 갔다.

김진우는 16일 등판이 끝난 뒤 “지난 주말에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고민했다. 오늘 나오면서 편하게 던지고 안 되면 내려가서 준비하고 오자는 각오였다. 그런데 캐치볼을 하는 데 느림이 좋았다. 이날이 지날수록 좋아졌다”며 “내가 등판한 경기에서 팀이 모두 졌었다. 그래서 간절하게 팀이 이기기를 빌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좌회위’ 불펜이 ‘1위’ 불펜과의 뒷심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뒀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계속된 부진으로 2군에 다녀왔던 홍건희가 지난 11일 kt전에 이어 LG를 상대로도 1.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불펜에 힘을 얻었다. 김윤동의 활약도 계속됐다. 지난 13일 SK와의 연장전에서 세이브를 수확하는 등 김윤동은 묵직하게 경기를 풀어가면서 확실한 필승카드가 됐다.

무엇보다 가장 반가운 건 임창용의 부활이다. 김기태 감독의 인내 끝에 반전을 이룬 임창용은 최근 10경기에서 1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미스터 제로가 됐다. 그리고 이 10경기에서 임창용은 3승3세이브를 거뒀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불안했던 5선발과 마무리의 안정세는 타격 체제 모드의 KIA에 반가운 호재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김기태 감독은

17일 경기에 앞서 김진우의 전날 피칭에 대해 “좋았습니다”라며 짧게 답을 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설명이었다. 김진우는 선발 로테이션에 따라 오는 21일 두산에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기복 많은 김진우가 안정된 피칭을 이어가면서 확실한 믿음을 줘야 한다.

임창용과 김윤동의 부활을 떨어줄 불펜의 고른 활약도 중요하다. 두 사람은 불펜 상황에 따라 1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경우가 잦다. 날이 더워지면 체력적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는 만큼 이날 부활을 떨어줄 불펜진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밝은안과21병원, 투수 임기영 3·4월 MVP 선정

KIA 타이거즈 투수 임기영이 광주·전남 기자단이 선정하고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이 시상하는 3·4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임기영은 3·4월 6경기에 구원 및 선발투수로 등판해 33.2이닝 동안 3승(1패) 탈삼진 20개, 평균자책점 2.41을 기록했다. 임

기영은 지난 16일 광주 LG전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밝은안과21병원 김덕배 원장이 했고, 시상금은 100만원이다. 임기영은 시상금 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부활 이범호 “내 자신에게 실망했었다”

## 다승 6위 임창용 “세이브 해야 하는데”

### 덕아웃 T 특특

▲정말 아닙니다 = 소신 있는 김호령이다. 김기태 감독이 17일 훈련 시간에 새 고글 차림으로 경기장에 등장했다.

“잘 어울린다”는 선수들의 의견과 달리 ‘NO’를 외친 한 사람이 있었다. 김 감독은 “다른 애들은 다 어울린다고 하는데 김호령만 아니라고 그러냐”며 껄껄 웃었다. 이에 김호령은 “정말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 = KIA의 2017시즌 첫 끝내기소의 주인공 이범호에게는 실패가 약이 됐다. 이범호는 16일 끝내기 안타를 때린 뒤 “월요일에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었다”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범호는 앞선 SK와의 원정에서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고 주루사도 기록했다. “내 자신에게 실망했었다”는 이범호는 이날 일찍 경기장에 나와 영상과 기록 등을 살펴보면서 베테랑의 책임감을 보였다. 그리고 이범호의 반성과 노력은 동점 홈런과 끝내기 안타로 이어졌다. 이범호의 말을 전해 들은 김기태 감독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개인이 아니라 식구라는 마음으로 팀을 생각하는 것이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다음 팀들이 좋아하겠지 = 16일 KIA와 LG의 대결은 1·2위 팀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다. 그리고 두 팀은 첫 경기에서부터 11회 연장 승부까지 가며 소문난 잔치를 연출했다. 17일 경기에 앞서 김 감독은 “역시 강한 상대였다. 우리도 그렇고 저쪽도 첫 경기에서부터 필승조를 다 썼다. 남은 경기도 쉽게 이길 수

도 질 수도 없는 경기라 될 것이다”며 “다음 팀들이 좋아할 것이다”고 웃었다. KIA는 주말에는 두산을 만나고, LG를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치른다.

▲단질 때는 재미없어요 = 필승조로 자리 잡은 김윤동은 “시즌 초반과 달리 힘이 좋아졌다”고 최근 활약에 대해 말했다. 김윤동은 “밸런스도 좋아지고 간결하게 공이 넘어오면서 힘이 생긴 것 같다.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등판해보고 하면서 경기 보는 시야도 넓어졌다. 처음에는 공만 던졌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단질 때는 재미없었다. 사실 나도 긴장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티가 별로 안 나오 하더라. 던지고 나서 세이브 이런 기록들이 생기면 그때 재미있다. 어제 경기에서 지원이 형 티구가 넘어갔어야 했다. 통산 2승 투수가 될 수 있었다”고 웃었다.

▲세이브를 해야 하는데 = 다승 공동 6위의 ‘마무리’ 임창용이다. 임창용은 LG와의 홈경기가 열린 지난 16일 2-2로 맞선 11회 등판해 두 개의 탈삼진 포함 삼자범퇴로 이닝을 막았다. 그리고 11회말 이범호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 세이브를 해야 하는데 “세이브를 해야 하는데”라며 웃은 임창용은 “시즌 초반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다. 대표팀에 참가하면서 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고 처음에 결과가 좋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편하고 좋다. 오늘부터는 세이브에 욕심내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